

국토교통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관리 점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2022.10.31.

국토교통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업체 20여 개를 대상으로 '2022년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점검'을 실시하였다.

20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총 177개 업체를 점검하여 42건의 부적합 업체를 적발하고 합판마루, 주방가구, 가구 원·부자재, 레미콘, 바닥완충재 등 총 11종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의 경우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부적합 건축자재 4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와 표시등급 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하였다.

올해는 지난해 점검대상이었던 싱크대 등 주방가구를 포함하여 강화 합판마루, 인조대리석, 페인트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축자재를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점검대상 건축자재를 제조 및 납품하는 주요 업체를 불시에 방문하여 자재별 시료를 채취하고, 이들 시료가 실내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 성능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불량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이들 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시공 전에 예방함으로써 살기 좋은 주택 보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